

도시철도 2호선 17km 전 구간 걸으며 '대·자·보' 도시 구상

강기정 광주시장, 시의회·전문가 등과 현장 토론... "사람 중심 도시로" 도시철도 연계한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 설계 등 도시 활성화 방안 모색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들이 함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7km 전 구간을 걸으며, 도시철도와 연계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실현 방안을 구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8일 시의회·시민단체·교통 전문가·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7km 전 구간을 도보로 7시간 이동하며, 도시철도와 연계한 보행·자전거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시는 내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완공을 맞아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 등을 설계하고 있다. 현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보행자 중심도시로 전환적인 도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게 핵심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시회복력 및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목표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번 현장답사는 시와 의회, 시민단체 등이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을 직접 걸으며 보행자는 물론 자동차 교통량, 자전거·버스 이용 환경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계획을 수립·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현장답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한 고공완 행정부시

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광주시의회 박필순·최지현 의원,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진상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전략추진단·신활력추진본부·통합공항교통국 공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답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에 걸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인 한국은행 사거리-상무역 사거리-상무지구입구 교차로-금호지구입구 교차로-풍림사거리-월드컵경기장사거리-장미원사거리-주원교차로-백운교차로-양림휴먼시아2단지아파트 사거리-조선대 입구 교차로-산수오거리-서방사거리-중흥3거리(광주역) 17km를 직접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답사 도중 현장에서 즉석 토론회를 열고, 보고 느낀 점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 답사에 참여한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광주시의 대·자·보 도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탬 계획"이라며 "광주시도 앞으로 사람 중심의 광주를 만들고, 보행자 공간을 시민 생활 내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정책의 우선 순위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8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을 위해 광주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과 남구 푸른길공원 일대에 대한 현장답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두길 바라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자·보 도시는 우리가 갈 미래이고, 가야만 할 미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손을 잡고 시민 의견을 모으며 한

발 한 발 의미 있는 걸음을 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공정률은 80%로, 2025년 말 공사를 마치고 1년간 시범운행을 거친 뒤 본격 운영된다. 특히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 공사 중인 도로의 90%도 복구된다. 다만 한국은행 앞,

운전저수지 주변, 상무중학교 앞, 무등시장 주변, 중흥삼거리 도로는 내년 3월 말 복구 완료 예정이다. 백운광장 지하차도 공사와 병행하고 있는 주월 교차로 주변은 내년 6월 완료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문난 잔치에 먹거리 가득"...남도음식문화큰잔치 폐막

사흘간 관람객 27만명 다녀가

사계절 풍부한 해산물, 천혜의 옥토에서 난 품질 좋은 쌀, 국내 두 번째로 많은 한우, 천일염 전국 최대 생산지...

대한민국 대표 음식 축제인 '제 30회 국제남도 음식문화큰잔치'가 사흘 간 27만 명이 다녀가는 전국적 관심 속에 29일 막을 내렸다.

풍성한 식재료에 빼어난 손맛, 푸짐한 정 가득한 남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개막한 국제남도 음식문화큰잔치는 다채로운 남도음식 콘텐츠로

사흘 간 2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올리며 29일 폐막했다.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까지 30년째 이어온 음식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도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기도 하다.

올해도 이같은 점을 감안, 남도명인 푸드쇼, 요리 인플루언서 쿠킹쇼, 어린이 쿠킹클래스 등 참여형 이벤트, 시·군 특화빵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도빵지순례 버스, 남도 전통주 만들기 체험장 등의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남도음식과 관련된 사연 신청자 20여명을 선정, 무료로 코스요리를 대접하는 오세득 셰프의 남

도다인닝 코스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유명 피자업체와 협력, 고품 유자와 영양 무화과를 주재료로 해 개발한 '남도 1호 피자' 무료 시식 행사도 인기를 끌었다.

최근 OTT에 출연, 주목받은 정지선(중식), 임희원(한식) 셰프와 미술생 1스타 니시무라 등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인 글로벌 미식 존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29일)도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은 "케이(K)-푸드 중심에 있는 남도음식을 세계화하고 관광자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하철에서 오페라 공연 즐겨요"

광주교통공사, 징검다리 연휴 맞아 10월 2일 깜짝 콘서트

광주교통공사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도시철도 역사와 전동차 곳곳을 깜짝 콘서트 무대로 꾸민다.

광주교통공사는 "10월 2일 도시철도 역사와 전동차 안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이색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색 콘서트에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모은 유명 성악가 안세권 테너가 출연해 매력적인 오페라 선율을 시민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안세권 테너는 이날 오후 4시 20분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베르디의 '여자의 마음' 등 유명

오페라 곡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4시 34분부터 오후 5시까지 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시민에게 친숙한 음악으로 플래시몹(깜짝 공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간 금남로4가역 무대에서 풍요, 팝송, 가요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 밖에도 이날 금남로4가역에서 인산부 체험 등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함께 어린 무임 교통카드 안내, 청소년 교통카드 증정 행사 등도 연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평촌마을 '체류형 생태관광' 명소로

환경부 시범사업...생태평화여행·반디밥상 등 체험단 호응

'야외 박물관'이라 불리는 광주 평촌마을이 '체류형 생태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생태평화여행, 가사문화, 반디밥상, 포도 수확,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광주시는 지난 27-28일 1박 2일 간 무등산 평촌

마을에서 전국 체험단 25명을 대상으로 생태 가치를 재조명하는 '2024 체류형 생태관광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체험단은 환경부 선정 '9월의 생태관광지'인 무등산 평촌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자연과 생태계를 체험하고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2015년 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반디밥·수달·남생이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적 보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광주호호수생태원, 환백당·취가정·소쇄원, 분청사기전사관 등이 인접해 있는 덕분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9월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한 이후 전국에서 관광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하반기 수출상담회 308만 달러 계약 성과

전남도는 지난 27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우수상품 품평·상담회 및 수출상담회'를 열고 308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수출상담회에는 도내 농수산물 89개 기업이 참가해 김과 전복, 된장, 고추장, 배도라지 주스, 한우, 동결 건조 과일칩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

11개국 24명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주요 유통업체 상품기획가(MD) 34명도 참석, 전남 농수산물품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도 농수산물품 수출액은 8월 누계 5억 2155만 달러로, 수출 효자품목인 김, 전복, 오리털, 유자차 등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24.4% 성장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문 읽는 오늘 더 지혜로운 내일

지식을 넘어 지혜로 - 정보를 넘어 경쟁력으로 - 오늘 읽은 당신의 신문이 내일을 앞서가는 힘이 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